

약 속

이 건원(서울대학교)

Promise

Gun-W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약: 말이라는 표현이 곧 약속인 것으로 쓰는 경우에 이 약속의 형성에 대한 고찰이 말의 형성에 대표적인 단면이 되리라고 믿는다. 여기에서는 약속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의 입에서 내뿜는 공기가 어떻게 약속이나, 인사나 선언이 되는가를 말하는 "언화 행위 이론"이라고 불러워 지는 고찰을 시도한다. 먼저 이러한 언어 속의 법칙은 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된다고 보고 또 이러한 관점에서 단순한 언어적인 사실에서 부터 당위가 추론된다는 것을 따른다. 그래서 언화 행위도 분명한 歷史적인 事實을 形成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에서 오는 어떠한 주어진 시점에서 그 주어진 상황 때문에 우리는 꼭 어떠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歷史적인 當然 處方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 I

특히 지난 반세기의 韓國의 수난은 우리가 어려운 어린 시절을 더 좋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낼 수 밖에 없게 하였다. 이 때에 우리는 '역사적인 使命'을 띠고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명이라는 표현에 그래서 매우 익숙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언화 행위 이론에 의한 "역사적인 定義"라고 말하여 질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찾고 실천하여야만 하는 처방이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객관적으로 이 두 방식의 말은 하나는 언어를 통하여 고찰하는 언어 철학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인간 존재의 인간학적인 교육적인 이해에 의하는 현상학적인 방식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언어 철학은 언어를 통하는 것이 더 분명하고 더 쉽게 여러 사람에게 과학적인 또는 인지 과학적인 방식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논의될 수 있다고 하여서 이 '엄밀성'의 장점 때문에 택한다고 말한다. 이에 반하여 이러한 '언어학적인 전향(linguistic turn)'이 그렇게 엄밀성을 주리라고 믿었던 금세기의 믿음 자체가 하나의 환상이었다고 보며, 직관적인 현상학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느 하나만을 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두의 장점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택한다는 美名하에 走馬看山격의 모습을 띠는 것은 추천할만 하지 못하다고 본다. 간단한 담화 상황에서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서 두 방법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택하여 질 뿐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연구라고 하여도 우리는 그 연구는 자연 과학을 포함한 언어학의 연구 결과에 의존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논의에서는 이러한 언어학적인 연구의 결과들은 그 내용을 말할 수는 없고 전제된 것으로 그들의 결과에 의존한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약속에 대한 고찰은 그 방대한 언어 철학을 모두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요약할 수도 없어서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하고 그 고찰의 기준이나 그 배경 이론은 쉘(John R. Searle, *Speech 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을 따른다. 우리가 쉘의 언어 철학을 따르기 이전에 예로 서울대학교 국어 작문 교재에서 쓰는 언어의 여섯가지 기능을 먼저 말하고 시작하는 것이 국어학과의 연관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본다. 심재기는 1. 정보적, 2. 표출적, 3. 명령적, 4. 친

교적, 5. 관어적, 6. 미학적 기능으로 고찰하는 분류를 소개하고 있다.(대학국어작문 이수성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361-367쪽) 언어학에서 중요한 연구의 결과이고 이것이 곧 철학적인 고찰에 되지 못하나 먼저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입각한 언어 철학으로 정립한다는 것만을 분명히 한다. 즉각적으로 약속은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3. 명령적인 것은 말할 수 있으나, 듣는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를 바라는 경우에 쓰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미래의 어떠한 행위에 개입한다는 약속의 특성까지 이 분류에는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일단 이러한 분류도 좋은 지침이 된다는 것을 받아 들여야 옳다.

철학적인 사고에서는 우리가 적어도 이 약속에 관여되는 미래에의 개입에는 전통적으로 세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 통상이다. 이것은 철학의 1. 宇宙론, 2. 人性론, 3. 價値론으로의 분류를 따르는 개론(김준섭)의 방식에 따라서 고찰한다. 쉽게 저 하늘의 저 무수한 별들도 어떠한 법칙에 따라서 운동하여 왔다는 근거에서 이 별들의 미래의 운동이 어떠하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그 특성을 말하면, 이러한 고찰은 우주의 秩序(ton kosmon)라고 이름하여 왔었다. 천체의 미래의 운동에 말하는 사람이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개입적인 언화 행위이고 이것을 우리는 예측이라고 말하여 왔다. 만약에 우주의 창조주를 티마이어스처럼 전제한다면, 그 창조주(demourgos)로서는 이것도 약속이라고 하여야만 하고 그래서 고대에는 이것을 예로 "약속의 땅"이라는 표현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볼 수 있다. 다음에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이성의 모습은 이성이 어떠한 것을 論理(logos)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인간 이성은 形式(eidos)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 이 형식적인 사고는 우리가 어떠한 모형을 假定(eikasia)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순수 이성에는 논리적인 법칙에 따르는 논리적인 미래의 형식에 대한 개입도 가능하다. 즉 나는 사람들이 0에서 하나를 더하는 방식에 의하여서 어떠한 수열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형식적인 추론에 의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모두 하여 보지는 못하였어도 앞으로 어떠한 자연수에도 그 다음 수가 있도록 된 자연수의 집합을 상징할 수 있다. 이러한 약속(Belegung <G. Cantor>)을 정의에 의하여 주어진 예약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이를 형식적인 사고에서의 미래의 행위에 그러한 형식을 건설한(construct)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개입은 참으로 일반 법칙에 의한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약은 이러한 형식의 존재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놀이에서의 법칙에 의한 놀이의 진행에 대한 놀이의 법칙을 만든 사람의 개입이라고 하여야 옳다. 이러한 우주론적인 물리 현상과 그러한 물리 현상에 내재한다고 믿는 물리적인 법칙을 예로 물리적인 현상의 數學적인 原理(I. Newton)를 말하고 이러한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는 물리현상의 미래의 모습에 말하는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를 우리는 예측(prediction)이라고 이름한다. 예측 속에 아직도 약속같은 모습이 있다고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조물주가 이 기계를 만들 듯이 만들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하였던 전통이 자꾸 남아 있거나, 아니면 類比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하겠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그 모습을 우리의 머리 속에 분명하게 하였다면, 우리는 벌써 두가지의 파도는 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그래서 좁은 의미로 화자가 그의 미래의 행위에 개입하는 언화 행위인 약속은 또 다른 세번제의 波濤(trikumias)로서 우리의 행위의 문제일 것이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인 원래의 약속은 약혼이 혼인의 약속이라는 뜻에서의 약속이다.

이러한 언화 행위(Speech Acts)로의 연구는 오스틴의 말로 하는 것들(J.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University Press 1962)에서 시작하는 것이 통상이다. 오스틴도 쉘과 같이 이 약속은 介入적인(commisives) 언화 행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개입적인 특성은 지금까지의 철학적인 배경이 분명하게 말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쉘은 오스틴의 분류인 1. 평결적(verdictives), 2. 결정적(exercitives), 3. 개입적(commisives), 4. 설명적(expositives), 5. 행태적(behabitives)으로의 그의 하바드 강의에서의 언화 행위의 분류가 분명한 基準이 없는 분류이었다는 주된 이유로 다시 분류하였다. 쉘의 분류는 1. 단언적(assertives), 2. 지시적(directives), 3. 개입적(commisives), 4. 정표적(expressives), 5. 선언적(declarations)이다. 이제 쉘의 기준(별첨)에 따라서 약속을 그 술어 "약속하다(promise)"의 언표내적인 동사로의 특성을 말하여서 이러한 연구의 단면을 본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말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의 명제(proposition)의 성질들을 고찰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그 명제에 입언(predications)될 수 있는 것들 F를 고찰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F(p)

(π)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루는 술어 "약속하다"라는 명제가 어떻게 입언될 수 있는가를 다루는 것이고, 이 특정의 술어가 다른 술어와는 달리 하나의 특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기 위하여 그 판단에 사용된 기준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쉐의 12가지 기준이 의도하였던 것이고 다음에 이 "약속하다"라는 술어를 이 기준에 따라서 고찰한다.

## II

어떠한 말에서나 하나 우리가 쉽게 전제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기준들을 열거하여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들의 자국어어를 사용하는 경우의 우리가 보통 "언어적인 직관"이라고 말하는 문장 의미의 존재를 전제한다. 오스틴의 분류는 이러한 형태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드럽게 받아 들인다. 그러나 조금 중요한 언화 행위로 약속이나 선언 또는 판결에서는 단순한 직관에만 의지할 수 없는 면도 곧 눈에 띈다. 이러한 직관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들을 포함하는 고찰을 위하여서 우리는 다음의 문제들을 기준으로 든다.

II.1. 말을 하는 행위의 요점의 차이들을 고찰한다. 약속의 경우에 그러한 말을 하는 의도를 고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도한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는가이고, 이것은 약속의 경우에는 먼저 그가 미래의 어떠한 행위에 개입한다는 것이 그 요점이지만 그 말에는 내가 나의 달력에 나를 위하여 적어 놓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미래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약속은 혼자하는 약속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수반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그래서 약속은 원래의 약속과는 다른 상호간의 약속으로 분류되어야 옳다. 약속이라는 것 자체는 먼저 말한 말하는 사람의 미래의 행위에 개입을 말할 뿐이지 약속이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속을 본인의 미래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서 개입적인 것과같이 보는 것은 매우 느슨한 분류의 시도로 보아야 옳다.

II.2. 말과 세계간의 적합성의 방향을 고찰한다. 약속은 미래의 행위에 개입하기 때문에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 앞으로의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앞에서 명령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이러한 적합성의 방향은 앞에서 말한 그 행위의 요구가 말하는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의 요구를 원래의 그 정의에 의하여 요구하는지 여부까지를 말하는 위의 요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적합성의 방향은 사실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 방향이 세계에서 말이라고 하였고, 그것이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말에서의 세계로의 방향이라고 분류한다. 그래서 위의 심재기의 분류에서 2. 표출적인 경우가 말에서 세계의 방향으로 분류될 수 있고, 약속을 이 표출적인 측면과 결합하여서 명령의 미래의 행위의 개입의 측면을 뺀 표출적인 언화 행위의 말에서 세계로의 방향을 결부시켜서 약속을 설명할 수도 있다.

II.3. 심리적인 차이들을 고찰한다. 한 사람이 어떠한 위로나 임시방편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뜻이 없으면서 약속하여서 실제로 그가 원하는 바는 그저 말로라도 동의를 얻어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지지를 받으려는 "공약"인 경우에 그 심리적인 상태는 진정으로 그가 그러한 행위를 미래에 하겠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그 심리적인 상태의 고찰이 요구된다. 그래서 여기서 든 예에서는 결으로는 약속이나 그러한 많은 경험을 가진 우리는 空約이라고 한다. 쉐의 언어 철학으로의 언화 행위 이론은 이 심리적인 상태를 언어로 표현된 심리적인 상태로 고찰하고 있어서 우리의

공약이라는 단어와는 달리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가 일인칭에서는 사용될 수 없고 삼인칭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쉘에서는 내가 약속하였으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심리적인 상태는 약속이라고 분류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인칭에서는 약속의 언어 표현과 더불어서 그 약속의 의도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단지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의 고찰은 삼인칭에서 값이 약속하였으나 그는 그 약속을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언화 행위만을 가능한 언화 행위로 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언어학적인 접근의 특성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조금 더 고찰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예를 든다. 플라톤의 공화국도 영혼 불멸을 말하는 것으로 맺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영혼 불멸론이 없이는 플라톤의 철학은 무너지는 철학이라고 말한다. 플라톤이 그가 죽은 후에 10일 이내에 다시 살아 날 것을 약속하였다고 하자. 이때 우리는 플라톤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 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그러한 약속을 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아니고 이 말은 거짓말이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편의 언급은 그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말하여서 이런 식으로 보면, 플라톤은 그가 다시 살아 난다고 약속하였으나 그는 그가 그러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의 글들을 시로 이해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거짓말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의 그러한 꿈을 그리고 그것이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꿈을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언어학적인 접근은 이러한 가정들이 의미있기 위하여서 일인칭에는 사용할 수 없고 삼인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의 차이의 고찰로 본다. 이러한 심리 상태의 고찰은 벌써 언어 표현된 명제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언어 표현하는 위의 (표)의 도식의 한도에서의 고찰이라고 분명하게 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이 심리 상태는 언어 표현된 심리 상태의 차이로 분명하게 할 수 밖에 없다.

II.4. 언표내적인 요점이 나타날 때의 힘이나 강도의 차이를 고찰한다. 우리는 같은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맹세한다거나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내일 뵈겠습니다와 내일 꼭 뵈겠습니다의 차이나 공사 일정에 "우천시에도 강행"이라던가 "천천후" 운행같은 표현은 그 의도가 그 언표속에 나타나는 힘이나, 강도의 차이를 알 수 있게 규정하여 주는 것으로 본다. 시로서 플라톤의 공화국의 마지막이 영혼 불멸설로 끝을 맺는 것은 민주주의의 실현이 자유를 실현하도록 한다(Ten eleutherian, eipon. Rep 562b)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까지는 같으나 영혼 불멸론은 그 언표 속에 나타나는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특정의 강도임을 나타내어 준다는 것으로도 음미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그 언표 속의 強度가 그 약속 속에 고찰되어야 한다고 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로의 그 언표의 강도의 판단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II.5. 언표내적인 힘을 견지하는 청자와 화자의 지위나 직위의 차이를 고찰한다. 약속은 명령이나 공문서의 기안 같은 특정의 직위나 지위를 화자나 청자에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이 약속이 원초적으로 그 화자의 미래의 행위에 개입이라는 정의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장군이 장병들에게 방을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그 직위 때문이고 장병이 장군에서 방을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것을 제의라고 분류하는 것도 이러한 고찰의 대상이다. 그러나 약속이라는 명제는 그 원초적인 요점이 그 말하는 사람의 미래의 행위에 개입한다고 하여서 이것을 우리는 특정의 직위나 지위와는 무관하게 보는 것이 일관성있는 고찰이라고 본다.

II.6. 화자와 청자의 이해 관계에 관여되는 발화하는 방식의 차이를 고찰한다. 이것을 언화행위 이론에서는 예비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예로 조의를 표명하는 것이나, 또는 축하를 하는 경우에 그러한 언화 행위를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과 같다. 같은 약속도 그 약속을 장담으로 하는 것과 그러한 약속을 절규로 하는 경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값이 내가 내일 당신을

방문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방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나 또는 내가 당신을 방문하는 것을 어여뻐 여겨 달라고 약속하는 방식은 그 언화 행위를 발화하는 방식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프라톤이 같은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10일 후에는 다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과 내가 죽어도 10일 후에는 다시 살아 난다고 장담하는 것은 그 강도와는 달리 또 다른 발화 방식의 차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이 그 요점은 약속이더라도 시적인 맥락에서는 다르게 발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강도나 심리 상태들과 별개로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받아 들인다. 이러한 기준들의 상호 연관성들은 다른 기준에서도 같다.

II.7. 그 논의에서 다른 부분들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맥(context)으로 말하여도 좋다고 본다. 특히 이해에서는 이 문맥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 문맥을 떠난(null-context) 의미는 없다고 까지 단언한다. 우리의 속담에 싸움을 말리는 말이 싸움을 돌구는 것이 된다는 것처럼 실제의 상황에서 약속이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反語(irony)로 사용될 수도 있다. 방학이 끝나고 집을 나서는 유학생이 동생에게 우리 내일 같이 산보하자고 한다면, 그 말을 농담으로 보다는 내가 내일 기숙사가면 산보할 수 없으니 오늘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주겠느냐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그렇게 이해되는 것은 단지 그 문맥의 특수성 뿐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맥의 특수성이 그 발화 의미가 그 문장 의미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일 경우도 있어서 우리는 문맥 때문에 반어가 살아서 이해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은유나 반어를 살아 있는 의사 소통의 도구로 만드는 것은 그 발화 의미가 그 문장 의미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그 문맥이라고 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문맥은 우리가 고찰하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여 진다. 약속이 위의 학생이 내일 집을 나서면서 우리 내일도 같이 바둑을 두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그 문맥에 따라서 내일은 둘 수 없으니 한 판 더 두자는 것으로 발화 의미가 되는 약속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문맥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발화 의미의 특수한 사용을 축어적인 발화 보다 더 바람직하다거나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것이 그렇게 받아 들여야 하는 특수한 문맥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뿐이다.

II.8. 언표내적인 힘의 지시 도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명제 내용의 차이를 고찰한다. 약속은 말하는 사람이 그의 미래의 행위에 개입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명제 내용이 "未來의 行爲"일 뿐이지 예로 과거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명제 내용이 될 수 없다는 제약을 받는다. 이것은 언화 행위 이론의 명제 내용의 조항에 해당한다.

II.9. 언제나 언화 행위이어야만 하는 행위들과 언화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언화 행위로 이행될 필요가 없는 행위들 사이의 차이를 고찰한다. 약속 중에서 말로 할 수 있으나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고찰하여서 그들의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예로 인도의 한 지방에서 태어난 간디는 그가 자란 그 지방의 결혼의 약속을 말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간디와 그의 부인이 된 그 때의 처녀는 연못가에서 둘이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간디는 빵을 들고 있었다. 간디는 빵을 그의 부인이 된, 그 때의 처녀에게 건내어 주고 그 처녀는 그 빵을 받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그 남자의 빵을 받아 먹는 것이 결혼을 승낙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그 지방의 풍습이었다고 설명한다. 약속에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 때의 그 소녀의 심리 상태를 생각하여서 그 소녀에게 더 부드러운 장점도 있을 것이나, 대체로 약속은 언어와 언어외적인 요소 매우 자주 회식같은 것이 결부되는 것이 우리의 풍습이다. 우리의 전통의 다혜가 가지는 뜻은 아주 다양하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는 범위와는 다른 부분으로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II.10. 그것의 이행에 언어외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는 행위들과 그렇지 않는 것들과의 차이를 고찰한다. 금방 태어난 아이는 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어른들에 의하여서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그 어른들 예로 부모는 그의 이름을 갑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모

가 그 아이의 이름을 갑이라고 부르고는 주민등록부에는 을이라고 기재하였다면, 그 이름을 갑이라고 부르자는 약속에 개입하는 언어외적인 요소의 문제가 결부된다. 이름을 그 당사들도 모르게 기록하여 놓았다면 그것이 그렇게 부르도록 약속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서 이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이름하기로의 약속에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성까지 새로 짓지는 못하고 많은 가족들은 그들의 이름 두자 중의 하나는 그들의 형제들과 같은 글자를 쓰도록 하는 돌림 자를 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돌림 자는 대체로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인다. 이러한 형제라는 언어외적인 요소도 있는 이름하는 약속이 있을 수 있다.

이와 완전히 같지는 않으나 매우 중요한 비교의 자료는 “建設적인 測定(constructive measure)”이다. 우리가 달에 이름을 부치는 약속을 고려하면 이것은 원초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의 측정의 구조를 건설하여서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건설적인 측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예로 한해를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로 부르는 것은 이러한 사계절이라는 이름하는 약속까지 포함한 구조에 의한 측정이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미국에서는 가을을 fall이라고 하여서 영국의 autumn이라는 가을의 이름과 달리 쓰고 있다. 예로 내가 가을을 다른 이름으로 예로 “다”라고 부르기로 약속하는 것이 언화 행위가 될 수 있는냐고 하면, 그것은 거의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 오거스틴은 일년 중에 가장 더운 8월을 그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기로 하였고 그것이 지금도 그러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적어도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지금 쉽게 고쳐 쓸 수 없는 이름이 되고 말았다. 작년에 우리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원래의 이름으로 복원시켰다. 아직도 나는 묘량국민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여도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백년 후에 거의 모두가 초등학교가 1950년대에 국민학교이었다는 것을 모를 때에는 차라리 묘량초등학교를 나왔다고 말하는 것이 묘량국민학교를 나왔다고 말하는 것 보다 더 편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상의 이름의 변경같은 것이 개입하는 건설적인 측정은 매우 흥미있는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순수한 작명만이 아닌 그 수학적 구조와 결부된 경우가 측정의 대상을 어떻게 언어 표현하느냐는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때의 그 수학적 구조는 언어외적인 요소이고 이것을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우리는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요한 이름의 문제는 측정의 기초(D. Luce et al, Foundations of Measurement, Academic Press 1990)에 의거하는 연구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철학이 언어의 연구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을 것이다.

II.11. 그에 해당하는 언표내적인 동사가 이행적인 용법이 있는 행위들과 그러하지 못하는 것과의 차이를 고찰한다. 약속은 이행적인 용법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장담이나 위협은 이행적인 용법이 없는 것으로 분류한다.

II.12. 언표내적인 행위의 이행의 말씨의 차이를 고찰한다. 약속이 이행성적인 용법이 가능하여도 그 말씨의 차이가 고찰되어야 한다. 우리말에는 특히 待遇 또는 존칭의 문제가 그 어미에 고정되기 때문에 언화 행위의 고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대우가 너무나 변잡한 예범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불편을 가져 올 수도 있어서 또 다른 고려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로 유아원의 선생님이나 많은 어머니들은 어린 아이를 교육할 때 이러한 원래의 대우법을 따르지 않고, 그 아주 어린 아이가 그대로 반복할 수 있는 어법을 쓴다. 아이에게 “잘있었니?”가 유치원 선생님이 말하여야 할 말씨이지만, 그 선생은 “안녕하셨습니다?”로 말하여 그러한 대우법을 모르는 유아가 단지 따라서 “안녕하셨습니다?”라고 하여도 좋도록 말한다(이용주, 대우의 원리, 대학작문 전게서). 그래서 말씨도 이제는 古語體의 대우법에 따르는 말씨가 우리에게 약간 생소하듯이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 가리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언어의 뜻은 그 사용에 있다는 원리에 맞추어 가게 되리라고 본다. 약속에서도 이에 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 III

영어에서나 우리 말에서 우연하게도 말(word)이 곧 약속인 것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많은 동사들의 모든 이행적인 용법의 연구(장석진)들을 소개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약속하다라는 동사는 좋은 예가 된다고 본다. 이제 이러한 언화 행위 이론의 단면이 어느 정도 그 모습을 드러 냈다면, 쉘의 倫理학적인 논문(Derivation of is from ought)의 논의에 따라서 존재에서 당위가 추론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우명섭의 이러한 주제의 발표는 우리가 쉘의 글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은 격렬한 반론이 뒤 따르는 것을 우리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존재에서 오는 사실 판단과 당위 또는 規範에서 나오는 評價(evaluatives)가 구분된다는 것도 받아 들이고 단지 존재에 대한 언화 행위에서 당위에 대한 언어 행위가 추론되느냐는 문제로만 축소하여 본다. 추론 된다는 것에는 거의 모두가 인정한다. 여기에는 물론 다른 사항의 변화가 없는 한(ceteris paribus)이라는 조항을 두고 말한 것이다. 문제는 언어외적인 도움으로 얻어지는 推論인가 아닌가 하는 논의에서 쉘은 절대적으로 언화 행위만으로 그러한 당위가 추론될 수 있다고 말한다. 순수한 발화 행위로 약속이 언화 행위가 되었다는 이유에서 그러한 약속의 이행이 그 약속을 한 사람에게 당위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말한 약속의 그 말하는 사람이 그러한 행위에 개입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으로 말한다.

우리는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의 記述문 A에서 그러한 문장 A에서 순수하게 언어적인 사실로부터 그 역사적인 사실 기술문 A에서의 추론의 결과 B라는 당위를 추론 할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의 기술 A를 주어진 역사적인 定義(definition)라고 한다면, 이 정의는 다음의 추론에 다른 前提들과 같은 推論의 힘을 부여하여서 순수한 형식적인 추론에 의하여서 B를 추론하였을 경우에 이 B가 當爲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추론상에서 A명제가 역사적인 정의이어서 정의 자체에서는 당위가 추론되지 못한다는 一般法則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역사적인 사실에서 당위의 추론은 正當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을 대체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였던 사실의 기술의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한강대교가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A)  
한강대교는 복구되어야 한다. (B)

여기에서 다른 조건이 같을 때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한강 다리 하나가 폭격으로 파손되었을 때, 다른 다리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매우 교통이 어려워서 그 한강 다리는 복구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추론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문장 (A)에서 문장 (B)로 추론 하는 것만을 말하지 다른 요소의 개입 예로 언어외적인 요소의 개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명이라는 표현은 순수한 언어 철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된다고 말하고자 한다.

별첨: John R. Searle의 분류 기준

- |           |   |
|-----------|---|
| 요점:       | 1. Differences in the point of the act.   |
| 적용방향:     | 2. Differences in the direction of fit between words and the world.   |
| 심리상태:     | 3. Differences in expressed psychological states.   |
| 힘:        | 4. Differences in the force or strength with which the illocutionary point is presented.                      |
| 지위:       | 5. Differences in the status or position of the speaker & hearer on the illocutionary force of the utterance. |
| 이해관계발화방식: | 6. Differences in the way the utterance relates to the interests of the speaker & the hearer.                 |
| 문맥:       | 7. Difference in relations to the rest of the discourse.  |
| 명제내용:     | 8. Differences in propositional content that are determined by illocutionary force indicating devices.        |
| 언화행위설립요건: | 9. Differences between those acts that must always be speech acts and those that is optional.                 |
| 언어외적요소:   | 10. Differences between those acts that require extra-linguistic institutions for their performance & not.    |
| 이행동사:     | 11. Differences between those acts where the corresponding illocutionary verb has a performative use & not.   |
| 말씨:       | 12. Differences in the style of performance of the illocutionary act.   |